

통합 건의,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' 지상중계

“먹고 살기 힘들니 통합이라도 해보자” 일부 찬성 “삶의 질 향상되고 인구 늘면 찬성의견 안나올 것”



- 일 시 : 2011년 11월 23일, 오전 10시30분
 - 장 소 : 고성군주민협의회 사무실
 - 참석자 : △이영일 고성군변영회장(64세) △함명준 고성군의회 부의장(52세) △이덕용 고성군이장단협의회장(60세) △황화선 간성재래시장변영회장(64세) △최준헌 고성청년회의소 상임부회장(40세) △이동균 고성21 공동대표(47세) △김용자 귀농인(51세) △안숙녀 신원안경원 대표(50세) △최광호 고성신문 편집국장(46세, 사회)



최준헌 고성청년회의소 상임부회장

하는데, 고성에서는 공무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말씀들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. 이런 점이 아쉽지만, 통합에는 반대한다.

△사회= 간성읍내에서 자영업업을 하시는 안숙녀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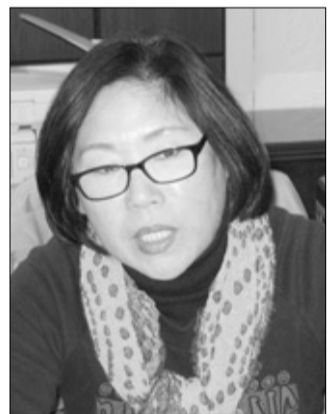
△안숙녀 신원안경원 대표=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계속 자영업업을 하고 있다. 지금까지 장사를 해오면서 요즘처럼 가게가 많이 빈 것은 처음이다. 줄어들면 모르겠는데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. 방금 귀농인께서 통합되면 안 좋은 시설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, 안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는 거다. 지금까지 통합을 안하고 살았다고 해서 좋아진 게 별로 없다. 바뀌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. 그런 면에서 저는 통합에 찬성한다.

△사회= 처음으로 찬성 의견이 나왔는데요, 이동균 고성21 공동대표님께서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주시죠.

△이동균 고성21 공동대표= 총론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각론에서는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찬성하는 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. 모 국회의원 후보께서 여론조사를 한 자료에 따르면 과반수가 찬성한 것으로 나와있다. 이런 원인이 뭘까요? 결국은 4개 시·군 통합에 대한 반대는 분명하지만,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.

이런 점을 감안해 고성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,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.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통합에 대한 찬성의견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. 이번 기회에 고성군이 심기일전해서 제대로 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.

☞ 4면으로 이어짐



김용자 귀농인



안숙녀 신원안경원 대표



이동균 고성21 공동대표

- 이영일** 속초 일방적 추진에 불쾌감 느껴·반대추진위 결성 계획
- 함명준** 군의원 전체 반대 입장·주민들 힘 합쳐 반대투쟁 나설 것
- 이덕용** 지역 기관단체 거의 만장일치 반대·물리적 행동도 생각
- 황화선** 통합되면 속초로 더 빠져나갈 것·상인들도 반대 동참
- 최준헌** 젊은층도 대부분 반대·회원들 반대활동 적극 동참 계획
- 김용자** 통합엔 반대하지만, 지역발전 위한 공무원들 노력 아쉬워
- 안숙녀** 통합 안하고 살아도 좋아진 게 별로 없다·찬성한다
- 이동균** 총론에선 반대·이번 기회에 고성군에서 성장동력 제시해야

된다면 쓰레기매립장 등이 고성으로 몰리지 않을까 걱정이다. 청정지역 고성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으로 본다. 속초에서는 좋은 여건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, 안 좋은 것은 고성으로 몰릴 것으로 본다.

두 번째로 통합도 생각을 해봤다. 3년 동안 귀농을 준비하고 막상 고향에 와보니 너무 발전된 게 없었다. 인구 유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, 실질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없더라. 다른 지역을 보면 어떻게든 단지와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